

한일병원, 최초 산업병원에서 지역 최고 종합병원이 되다

화상진료 '차별화' 역점 상급중병 수준 진료 목표

도봉구 유일의 종합병원인 '한일병원'이 설립 80주년을 맞아 국내 최고 수준의 화상진료센터 구축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현수 한일병원 원장은 '병원 창립 8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일병원의 차별화는 화상진료"라면서 "국내 최고수준의 화상진료센터를 구축해 옛 명성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수 원장

박 원장은 "지역 내 다빈도 급성기 중증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심장뇌혈관센터를 새롭게 재정비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 고객경험관리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교육을 위해 '고객경험매니저'제도 신설, 고객중심 프로세스 재설계 등 고객경험관리 활동을 전향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병원은 이날 'VISION 2020'를 통해 일평균 외래 2000명, 병상가동률 90%, 진료수익 연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고객 중심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원장은 "그 동안 홍보와 투자 부재로 한일병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초차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통해 강북 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펴는 병원이 될 것"이라며 "최고의 화상진료센터 구축을 통한 진료특성화, 신뢰받는 진료, 고객만족과 사회공헌으로 한일병원의 새로운 모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병원은 보다 나은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해 지역병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의료진을 대폭 확충하는 결단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일병원은 450병상 규모에 의료인력 133명(전문의 78명, 레지던트 41명, 인턴 7명, 기타 7명), 간호인력 411명(간호사 362명, 간호조무사 43명, 기타 6명), 약무직 17명(약사 13명, 기타 4명), 의료기사직 97명(방사선사 29명, 임상병리사 40명, 물리/작업치료사 8명, 응급구조사 7명, 치과위생/기공사5명, 의무기록사 4명, 기타 4명) 등 총 765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 원장은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직원들 업무는 과중되고 힘들어하는 현장들을 알게 됐다"면서 "전문의 10명, 중환자실 간호사 5명 증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 8명 증원, 진료과 지원인력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뇌혈관신경외과 전문의 2명, 전담간호사 등을 추가로 뽑아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응급의료센터 응급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일병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최신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교체, 2010년 128채널 컴퓨터단층촬영장치(MDCT) 도입 등 하드웨어 교체와 EMR 시스템 기반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 DW(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테블릿 PC를 통한 무선 OCS 처방 및 검사 결과 조회 등 시스템 구축으로 Smart-Hospital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병원은 향후 2차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무인자동출차시스템, 각종 진료 기록 및 보험청

구용 서류 등을 온라인 발급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1차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병실을 6인실에서 5인실로 조정했으며 중환자실을 전체 멸균시설로 보강했다. 음압병실 역시 2개를 구축했다.

2차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음압병실, 응급중환자실 구축, 통합화상진료센터 구축, 심뇌혈관센터 이전 보강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수 원장은 "1차 리모델링 후 2차 리모델링에서는 국가지정 응급시설 구축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응하고, 권역에 준하는 응급의료센터와 통합화상진료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통합화상·진료센터는 단순 진료가 아닌 전문 연구와 교

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병동·연구소를 통합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병원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부인과, 소아과 등 23개 진료과목을 갖춘 4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다빈도 수술 1위는 화상관련 수술이다. 화상진료전문센터는 국내 최고 진료를 선보이며 '전기화상치료분야'에서 독보적인 치료결과를 보이고 있다.

병원 설립 80년 역사를 지닌 한일병원은 경성전기운수부 의무실로 처음 병원 업무를 시작, 1962년 한일병원 개칭, 2000년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으로 발족된 이후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